

부 록

부록 1. 전문가 설문지

부록 2.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

부 록1

서울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도입 및 운영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지

안녕하십니까?

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(안)에서는 <도시기본계획 - 도시관리계획>의 2단계로 되어 있는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를 <도시기본계획 - 생활권계획 - 도시관리계획>의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계획의 일환으로,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도입 및 운영방안을 자체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

이번 설문조사는 1990년대 초 서울시 차원에서 수립되었다가, 2000년 이후에는 자치구 여건에 따라 임의로 수립되고 있는 자치구 계획의 의의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, 향후 자치구 계획의 도입 및 운영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.

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 응답에 협조해 주신다면, 향후 자치구 계획의 도입 및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.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, 개인정보 및 설문 응답에 대한 비밀은 통계법 제33조(비밀의 보호)에 의해 엄격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2012년 02월

서울시정개발연구원

연구 수행 기관	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 양재섭(연구위원), 김인희(연구위원) 남선희(연구위원, 02-2149-1102)	조사 수행 기관	(주)리서치플러스 장현중 (담당연구위원, 010-2074-0438) jhj@rsplus.co.kr
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	---

※ 설문은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설문 결과의 원활한 취합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2월 10일(금)까지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
※ 설문 응답을 모두 마치신 후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홈플러스 및 교보문고·CGV 영화관 등에서 사용 가능한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(1만원)을 즉시 전송해 드립니다.

※ 먼저,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.

※ 1990년대 초 서울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「2011 서울 도시기본계획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.

당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자치구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, 서울시와 자치구 간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. 이에 따라 1990년대 말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는 자치구 계획을 더 이상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.

※ 1990년대 초 서울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「2011 서울 도시기본계획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.

당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자치구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, 서울시와 자치구 간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. 이에 따라 1990년대 말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는 자치구 계획을 더 이상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.

문 1. 귀하께서는 1990년대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?

-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
③ 잘 모르고 있다 ④ 전혀 모르고 있다
⑤ 기타()

문 2. 귀하께서는 1990년대 수립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(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)

- 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계획수립 권한이 분담되었다.
- ② 자치구 스스로 장기적인 구상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.
- ③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위계획이 도입되었다.
- ④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 수립되었다.
- ⑤ 자치구 내 소생활권별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.
- ⑥ 생활상의 불편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치구 계획에 반영되었다.
- ⑦ 기타()

문 3. 귀하께서는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·운영함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(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)

- ① 비법정계획으로 자치구 계획의 위상과 성격이 모호했다.
- ② 용도지역 변경 등 민원성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.
- ③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중심적인 계획이었다.
- ④ 자치구 계획의 실현을 위한 예산과의 연계가 부족했다.
- ⑤ 자치구의 계획수립 역량과 운영 능력이 부족했다.
- ⑥ 계획수립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·조정이 미흡했다.
- ⑦ 기타()

문 4. 1990년대 초 서울시 차원에서 일괄 수립·운영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. 귀하께서는 1990년대 수립·운영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- ① 매우 긍정적이다.
- ② 비교적 긍정적이다.
- ③ 보통이다.
- ④ 비교적 부정적이다
- ⑤ 매우 부정적이다.

※ 다음은 2000년 이후 수립·운영되고 있는 자치구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.

문 5. 1990년대 말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는 자치구 계획을 수립하지 않지만, 상당수 자치구들이 임의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 귀하께서는 서울의 22개 자치구가 「○○구 발전계획」, 「○○구 도시관리기본계획」 등의 이름으로 자치구 계획(비 법정계획)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?



-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
③ 잘 모르고 있다 ④ 전혀 모르고 있다
⑤ 기타()

문 6. 2000년 이후에는 자치구 계획이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,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
립되고 있습니다.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
니까?

- ① 매우 바람직하다.
- ② 바람직하다.
- ③ 보통이다.
- ④ 바람직하지 않다
- 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.

※ 런던, 베를린, 도쿄 등 외국 대도시의 자치구들은 자치구 계획(LDFs: Local Development Frameworks), 생활권 발전계획(BEP,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등의 자치구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런던 타워햄릿 자치구계획
(Local Development Frameworks)

베를린 미페 생활권 발전계획
(Bereichsentwicklungsplan)

도쿄 나카노구
자치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



문 7. 귀하께서는 현재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자치구 계획을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로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- ① 매우 필요하다. ② 필요하다.
- ③ 필요하지 않다.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.
- ⑤ 기타()

문 7-1. [문7번에서 ①,②로 답하신 분만]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의 공식화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
- ② 전체 자치구 계획을 총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
- ③ 예산과의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
- ④ 서울시와 자치구 간 계획수립 권한의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
- ⑤ 기타()

문 7-2. [문7번에서 ③,④로 답하신 분만]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의 공식화가 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자치구 중심의 계획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
- ② 자치구의 전반적인 계획수립 역량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
- ③ 자치구 계획의 실현을 위한 예산부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
- ④ 1990년대 자치구 계획 수립 시 발생했던 문제점이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
- ⑤ 기타()

※ 다음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.

문 8.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, 계획의 목표연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5년 내외 (단기계획)
- ② 10년 내외 (중기계획)
- ③ 15년 내외 (중장기계획)
- ④ 20년 내외 (장기계획)
- ⑤ 기타()

문 9. 귀하께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얼마에 한 번씩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구청장의 임기(4년)에 따라
- ② 5년마다
- ③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
- ④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와 연계하여
- ⑤ 기타()

문 10. 귀하께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(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)

- ① 미래상과 발전전략
- ② 인구, 주택, 고용 등 계획지표
- ③ 부문별 계획(토지이용, 시가지정비, 기반시설 등)
- ④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계획
- ⑤ 예산과의 연계 등 계획의 실현전략
- ⑥ 기타()

문 11. 귀하께서는 현재 비법정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공식화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서울시가 관련지침을 제정해서
- ②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해서
- ③ 국토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서
- ④ 기타()

문 12.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을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로 인정하여 수립·운영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자치구 계획의 법정화
- ② 자치구의 계획역량 강화
- ③ 서울시와 자치구 간 지원과 협력
- ④ 주민참여를 토대로 한 상향식 계획 수립
- ⑤ 기타()

※ 다음은 **자치구의 계획수립 역량**에 대한 질문입니다.

문 13. 자치구 계획을 수립·운영함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, 자치구의 계획 역량도 중요합니다.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을 수립·운영하기에 현재 25개 자치구의 계획역량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매우 충분하다
- ② 충분한 편이다
- ③ 보통이다
- ④ 부족한 편이다
- ⑤ 매우 부족하다
- ⑥ 기타()

- ① 계획관련 전문인력과 조직의 보강
- ② 자치구 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 예산 지원
- ③ 주민과 지역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강화
- ④ 계획의 자문 및 심의기능 강화
- ⑤ 자치구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 강화
- ⑥ 기타()

※ **통계 처리**를 위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.

DQ1. 귀하의 **연령**은 어떻게 되십니까? 만 ()세

DQ2. 귀하의 **직업**은 어떻게 되십니까? ()

- ① 교수 ② 연구직 ③ 공무원
④ 공기업 종사자 ⑤ 민간기업 종사자 ⑥ NGO/시민단체 종사자
⑦ 기타 ()

DQ3. 귀하의 **전공**은 어떻게 되십니까? ()

- ① 도시계획 ② 도시설계 · 건축 ③ 교통 · 토목
④ 환경 · 조경 ⑤ 주택 · 부동산 ⑥ 경제 · 경영 · 행정
⑦ 사회 · 지리 · 문화 ⑧ 기타 ()

DQ4. 귀하께서 현재 분야에 **종사하신 지**는 얼마나 되셨습니까? ()

- ① 5년 미만 ② 5~10년 미만 ③ 10~15년 미만
④ 15~20년 미만 ⑤ 20년 이상

DQ5. 귀하의 **근무지**는 어디입니까? ()

- ① 서울시 _____ 구
② 인천 및 경기도
③ 수도권외지역

DQ6. 1990년대 서울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혹은 2000년 이후 자치구 차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**직·간접적으로 참여(자문, 심의, 행정처리 등 포함)했거나 연구한 경험**이 있으십니까?

-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()

◆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◆

부 록 2

전문가 설문조사 결과

● 설문조사 개요

- 설문 대상 :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480명(103명 응답, 응답률 22%)
- 설문 방법 : 온라인 설문(Online survey), ※ 조사기관 :리서치 플러스
- 설문 기간 : 2012년 2월 7일 ~ 2월 17일까지 (총 11일)

● 응답자 특성

〈연령〉

구분	응답수	비율(%)
39세 이하	13	12,6
40~49세	50	48,5
50세 이상	40	38,8
계	103	100

〈종사기간〉

구분	응답수	비율(%)
5년 미만	2	1,9
5~10년 미만	12	11,7
10~15년 미만	16	15,5
15~20년 미만	24	23,3
20년 이상	49	47,6
계	103	100

〈전공〉

구분	응답수	비율(%)
도시계획	57	55,3
도시설계/건축	10	9,7
교통/토목	9	8,7
환경/조경	4	3,9
주택/부동산	11	10,7
경제/경영/행정	5	4,9
사회/지리/문화	6	5,8
기타	1	1,0
계	103	100

〈직업〉

구분	응답수	비율(%)
교수	40	38,8
연구직	26	25,2
공무원	2	1,9
공기업 종사자	1	1,0
민간기업 종사자	25	24,3
시민단체 종사자	6	5,9
기타	3	2,9
계	103	100

〈자치구 발전계획 연구경험〉

구분	응답수	비율(%)
있다	52	50,5
없다	51	49,5
계	103	100

〈근무지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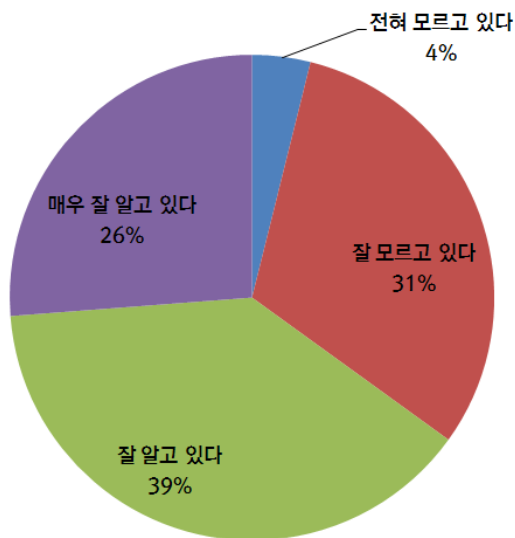
	응답수	비율(%)
서울시	65	38,8
인천/경기도	34	25,2
수도권외지역	4	24,3
계	103	100

문 1. 귀하께서는 1990년대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?

〈표 1〉 1990년대 서울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인지 여부

(단위 : 건(%))

구분	전체	전공별	
		도시계획	그 외
① 매우 잘 알고 있다	27 (26.2)	22 (38.6)	5 (10.9)
② 잘 알고 있다	40 (38.8)	23 (40.4)	17 (37.0)
③ 잘 모르고 있다	32 (31.1)	10 (17.5)	22 (47.8)
④ 전혀 모르고 있다	4 (3.9)	2 (3.5)	2 (4.3)
계	103 (100.0)	57 (100.0)	46 (100.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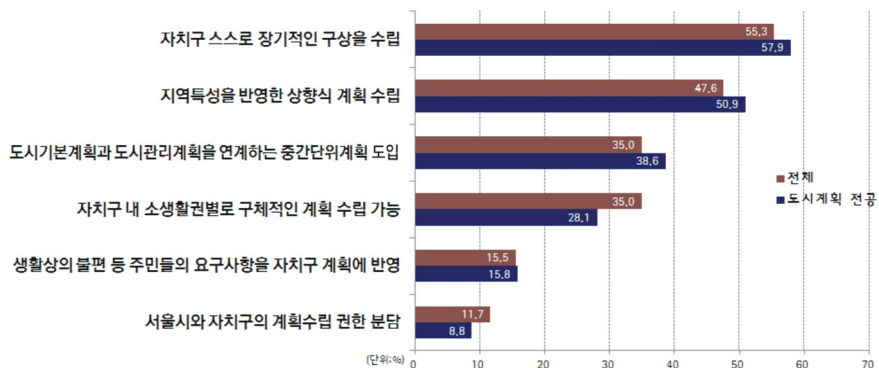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〉 1990년대 서울시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인지 여부

문 2. 귀하께서는 1990년대 수립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(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)

〈표 2〉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의의(복수응답)

(단위 : 건(%))

구분 (복수응답)	응답수	전공별	
		도시계획	그 외
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계획수립 권한이 분담되었다.	12 (11.7)	5 (8.8)	7 (15.2)
② 자치구 스스로 장기적인 구상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.	57 (55.3)	33 (57.9)	24 (52.2)
③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위계획이 도입되었다.	36 (35.0)	22 (38.6)	14 (30.4)
④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황식 계획이 수립되었다.	49 (47.6)	29 (50.9)	20 (43.5)
⑤ 자치구 내 소생활권별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해졌다.	36 (35.0)	16 (28.1)	20 (43.5)
⑥ 생활상의 불편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치구 계획에 반영되었다.	16 (15.5)	9 (15.8)	7 (15.2)
응답자수	103 (200.0)	57 (200.0)	46 (200.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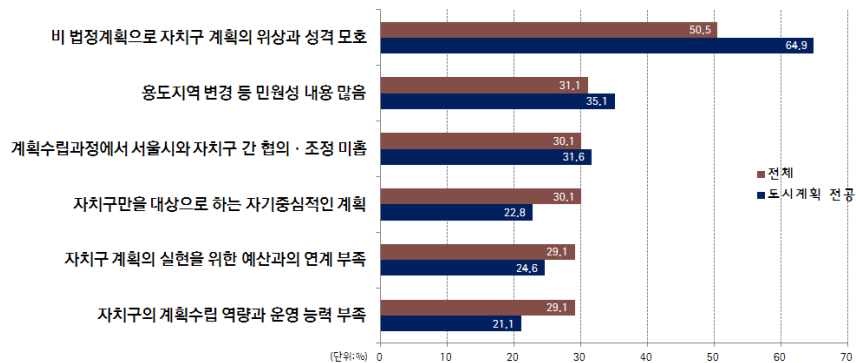
〈그림 2〉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의의(복수응답)

문3. 귀하께서는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·운영함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(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)

〈표 3〉 1990년대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(복수응답)

(단위 : 건(%))

구분 (복수응답)	응답수	전공별	
		도시계획	그 외
① 비 법정계획으로 자치구 계획의 위상과 성격이 모호했다.	52 (50.5)	37 (64.9)	15 (32.6)
② 용도지역 변경 등 민원성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.	32 (31.1)	20 (35.1)	12 (26.1)
③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 중심적 계획이었다.	31 (30.1)	13 (22.8)	18 (39.1)
④ 자치구 계획의 실현을 위한 예산과의 연계가 부족했다.	30 (29.1)	14 (24.6)	16 (34.8)
⑤ 자치구의 계획수립 역량과 운영능력이 부족했다.	30 (29.1)	12 (21.1)	18 (39.1)
⑥ 계획수립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·조정이 미흡했다.	31 (30.1)	18 (31.6)	13 (28.3)
응답자수	103 (200.0)	57 (200.0)	46 (200.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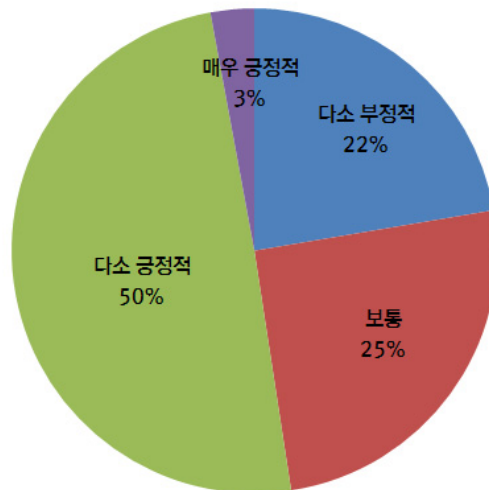
〈그림 3〉 1990년대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(복수응답)

문 4. 1990년대 초 서울시 차원에서 일괄 수립·운영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. 귀하께서는 1990년대 수립·운영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〈표 4〉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평가

(단위 : 건(%))

구분	전체	전공별	
		도시계획	그 외
① 매우 긍정적이다.	3 (2,9)	3 (5,3)	0 (0,0)
② 비교적 긍정적이다.	51 (49,5)	31 (54,4)	20 (43,5)
③ 보통이다.	26 (25,2)	9 (15,8)	17 (37,0)
④ 비교적 부정적이다.	23 (22,3)	14 (24,6)	9 (19,5)
⑤ 매우 부정적이다.	0 (0,0)	0 (0,0)	0 (0,0)
계	103 (100,0)	57 (100,0)	46 (100,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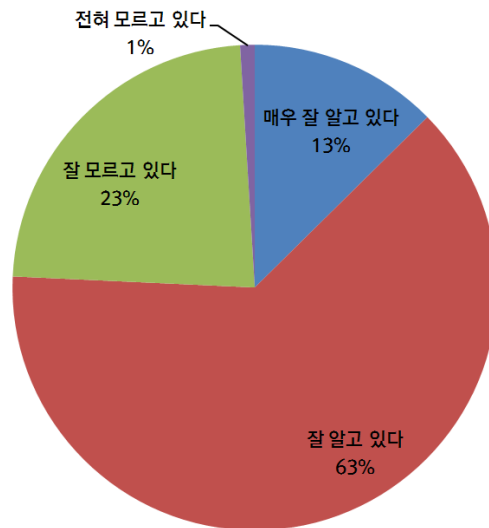
〈그림 4〉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평가

문 5. 1990년대 말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는 자치구 계획을 수립하지 않지만, 상당수 자치구들이 임의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 귀하께서는 서울의 22개 자치구가 「○○구 발전계획」, 「○○구 도시관리기본계획」 등의 이름으로 자치구 계획(비법정계획)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?

〈표 5〉 자치구 발전계획 수립사실 인지 여부

(단위 : 건(%))

구분	전체	전공별	
		도시계획	그 외
① 매우 잘 알고 있다	13 (12,6)	7 (12,3)	6 (13,0)
② 잘 알고 있다	65 (63,1)	39 (68,4)	26 (56,5)
③ 잘 모르고 있다	24 (23,3)	10 (17,5)	14 (30,4)
④ 전혀 모르고 있다	1 (1,0)	1 (1,8)	0 (0,0)
계	103 (100,0)	57 (100,0)	46 (100,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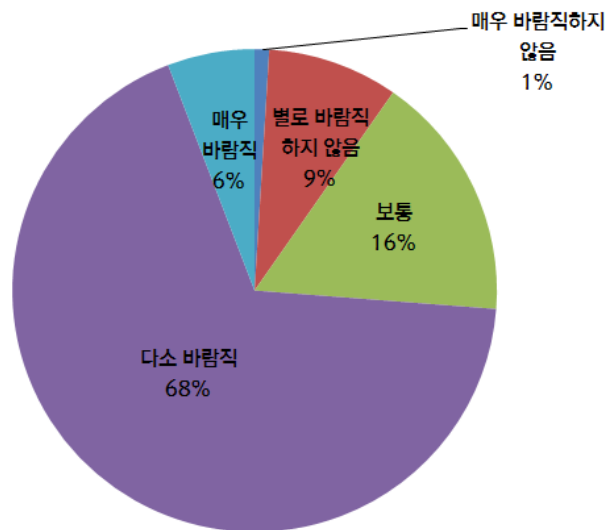
〈그림 5〉 자치구 발전계획 수립사실 인지 여부

문 6. 2000년 이후에는 자치구 계획이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,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.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〈표 6〉 2000년 이후 자치구 발전계획의 평가

(단위 : 건(%))

구분	전체	전공별	
		도시계획	그 외
① 매우 바람직하다.	6 (5.8)	4 (7.0)	2 (4.3)
② 바람직하다.	70 (68.0)	42 (73.7)	28 (0.0)
③ 보통이다.	17 (16.5)	6 (10.5)	11 (43.5)
④ 바람직하지 않다.	9 (8.7)	5 (8.8)	4 (37.0)
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.	1 (1.0)	0 (0.0)	1 (19.6)
계	103 (100.0)	57 (100.0)	46 (100.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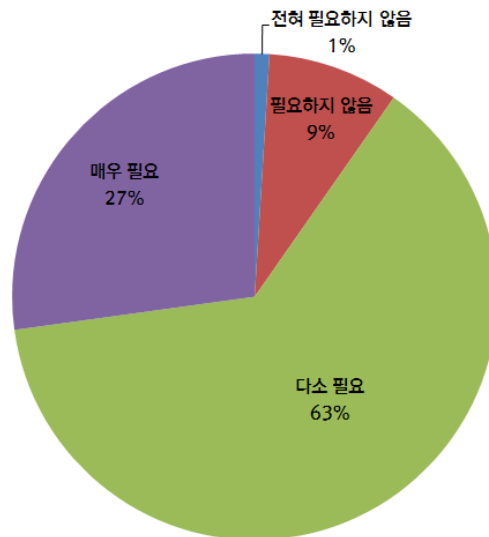
〈그림 6〉 2000년 이후 자치구 발전계획의 평가

문 7. 귀하께서는 현재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자치구 계획을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로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〈표 7〉 자치구계획의 공식화 필요성

(단위 : 건(%))

구분	전체	전공별	
		도시계획	그 외
① 매우 필요하다.	28 (27.2)	19 (33.3)	9 (19.6)
② 필요하다.	65 (63.1)	34 (59.6)	31 (67.4)
③ 필요하지 않다.	9 (8.7)	3 (5.3)	6 (13.0)
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.	1 (1.0)	1 (1.8)	0 (0.0)
계	103 (100.0)	57 (100.0)	46 (100.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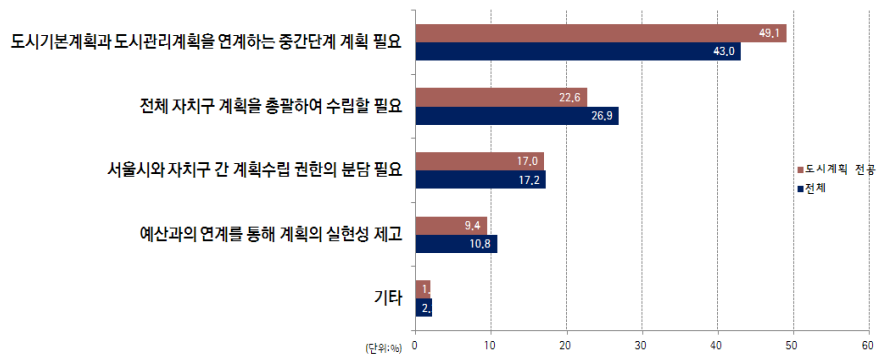
〈그림 7〉 자치구계획의 공식화 필요성

문 7-1. [문7번에서 ①,②로 답하신 분만]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의 공식화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〈표 8〉 자치구계획의 공식화가 필요한 이유

(단위 : 건(%))

구분(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)	전체	전공별	
		도시계획	그 외
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	40 (43,0)	26 (49,1)	14 (35,0)
② 전체 자치구 계획을 총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	25 (26,9)	12 (22,6)	13 (32,5)
③ 예산과의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	10 (10,8)	5 (9,4)	5 (12,5)
④ 서울시와 자치구 간 계획수립 권한의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	16 (17,2)	9 (17,0)	7 (17,5)
⑤ 기타	2 (2,2)	1 (1,9)	1 (2,5)
계	93 (100,0)	53 (100,0)	40 (100,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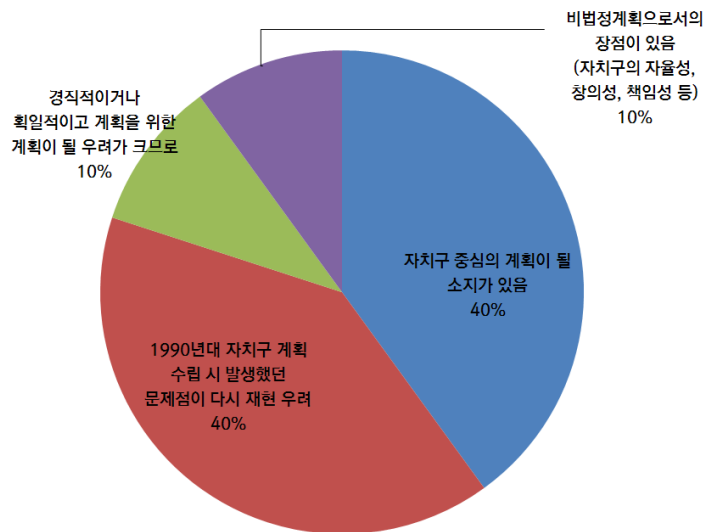
〈그림 8〉 자치구계획의 공식화가 필요한 이유

문 7-2. [문7번에서 ③,④로 답하신 분만]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의 공식화가 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?

〈표 9〉 자치구 계획의 공식화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

(단위 : 건(%))

구분	전체	전공별	
		도시계획	그 외
① 자치구 중심의 계획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	4 (40,0)	1 (25,0)	3 (50,0)
④ 1990년대 자치구 계획 수립 시 발생했던 문제점이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	4 (40,0)	1 (25,0)	3 (50,0)
기타 : 경직적, 획일적이고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	1 (10,0)	1 (25,0)	0 (0,0)
기타 : 비법정계획으로서의 장점이 있음(자치구 입장에서의 자율성, 창의성, 책임성 등)	1 (10,0)	1 (25,0)	(0,0)
계	10 (100,0)	4 (100,0)	6 (100,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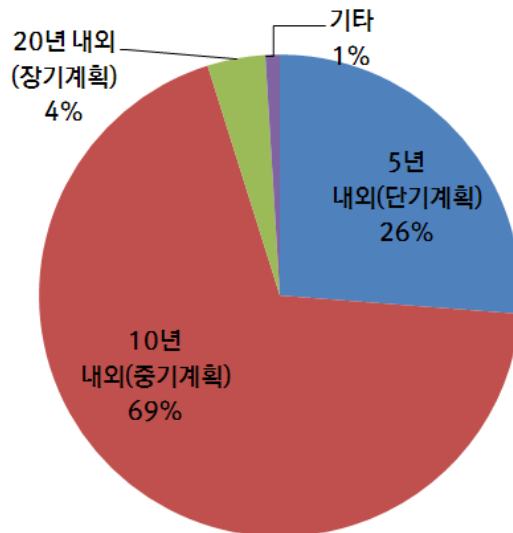
〈그림 9〉 자치구 계획의 공식화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

문 8.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, 계획의 목표연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〈표 10〉 자치구계획의 목표연도

(단위 : 건(%))

구분	전체	전공별	
		도시계획	그 외
① 5년 내외(단기계획)	27 (26.2)	13 (22.8)	14 (30.4)
② 10년 내외(중기계획)	71 (68.9)	40 (70.2)	31 (67.4)
③ 15년 내외(중장기계획)	0 (0.0)	0 (0.0)	0 (0.0)
④ 20년 내외(장기계획)	4 (3.9)	3 (5.3)	1 (2.2)
⑤ 기타	1 (1.0)	1 (1.8)	0 (0.0)
계	103 (100.0)	57 (100.0)	46 (100.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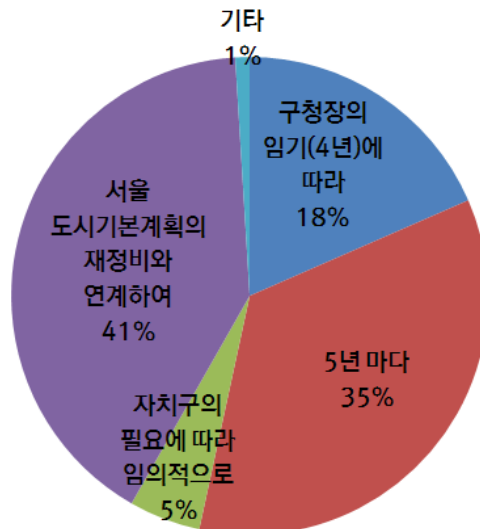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0〉 자치구계획의 목표연도

문 9. 귀하께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얼마에 한 번씩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〈표 11〉 자치구계획의 재정비 시기

(단위 : 건(%))

구분	전체	전공별	
		도시계획	그 외
① 구청장의 임기(4년)에 따라	19 (18.4)	14 (24.6)	5 (10.9)
② 5년마다	36 (35.0)	21 (36.8)	15 (32.6)
③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	5 (4.9)	4 (7.0)	1 (2.2)
④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와 연계하여	42 (40.8)	17 (29.8)	25 (54.3)
⑤ 기타	1 (1.0)	1 (1.8)	0 (0.0)
계	103 (100.0)	57 (100.0)	46 (100.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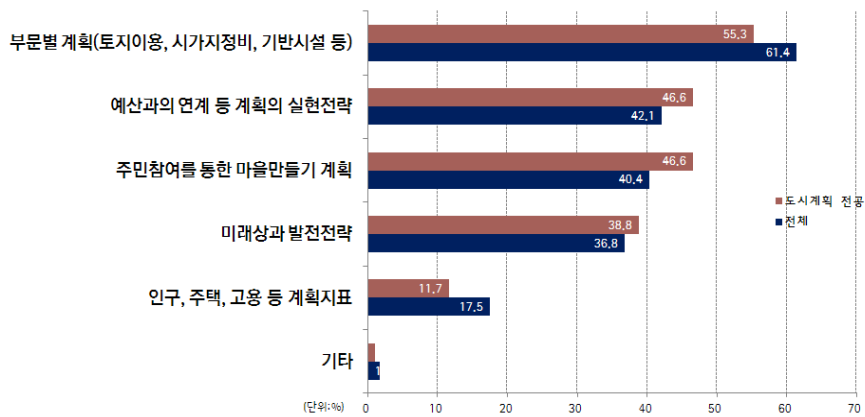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1〉 자치구계획의 재정비 시기

문 10. 귀하께서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(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)

〈표 12〉 자치구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(복수응답)

(단위 : 건(%))

구분 (복수응답)	응답수	전공별	
		도시계획	그 외
① 미래상과 발전전략	40 (38.8)	21 (36.8)	19 (41.3)
② 인구, 주택, 고용 등 계획지표	12 (11.7)	10 (17.5)	2 (4.3)
③ 부문별 계획(토지이용, 시가지 정비, 기반시설 등)	57 (55.3)	35 (61.4)	22 (47.8)
④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계획	48 (46.6)	23 (40.4)	25 (54.3)
⑤ 예산과의 연계 등 계획의 실현 전략	48 (46.6)	24 (42.1)	24 (52.2)
⑥ 기타	1 (1.0)	1 (1.8)	0 (0.0)
응답자수	103 (200.0)	57 (200.0)	46 (200.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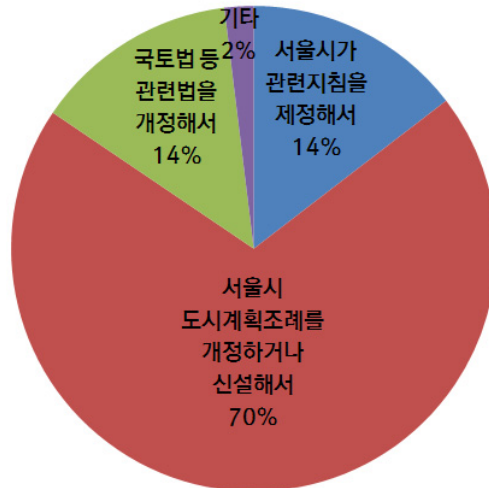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2〉 자치구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(복수응답)

문 11. 귀하께서는 현재 비법정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공식화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〈표 13〉 자치구계획의 공식화 방안

(단위 : 건(%))

구분	전체	전공별	
		도시계획	그 외
① 서울시가 관련지침을 제정해서	15 (14.6)	7 (12.3)	8 (17.4)
②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해서	72 (69.9)	39 (68.4)	33 (71.7)
③ 국토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서	14 (13.6)	9 (15.8)	5 (10.9)
④ 기타	2 (1.9)	2 (3.5)	0 (0.0)
계	103 (100.0)	57 (100.0)	46 (100.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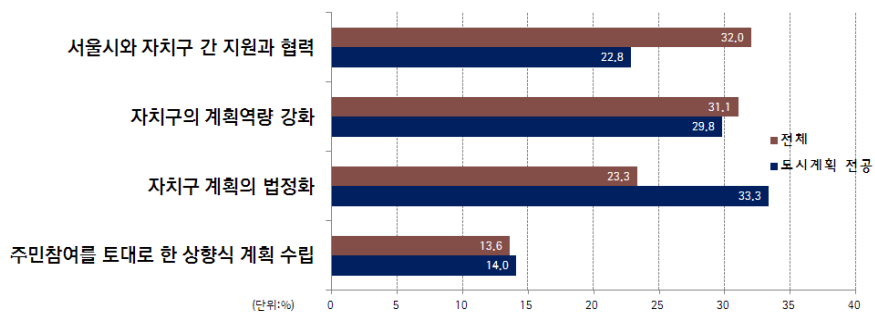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3〉 자치구계획의 공식화 방안

문 12.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을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로 인정하여 수립·운영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〈표 14〉 자치구계획의 공식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

(단위 : 건(%))

구분	전체	전공별	
		도시계획	그 외
① 자치구 계획의 법정화	24 (23.3)	19 (33.3)	5 (10.9)
② 자치구의 계획역량 강화	32 (31.1)	17 (29.8)	15 (32.6)
③ 서울시와 자치구 간 지원과 협력	33 (32.0)	13 (22.8)	20 (43.5)
④ 주민참여를 토대로 한 상향식 계획 수립	14 (13.6)	8 (14.0)	6 (13.0)
계	103 (100.0)	57 (100.0)	46 (100.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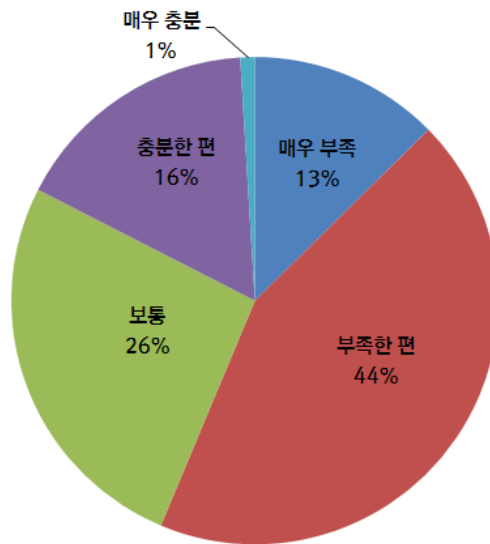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4〉 자치구 계획의 공식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

문 13. 자치구 계획을 수립·운영함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, 자치구의 계획 역량도 중요합니다. 귀하께서는 자치구 계획을 수립·운영하기에 현재 25개 자치구의 계획 역량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?

〈표 15〉 자치구 계획역량 평가

(단위 : 건(%))

구분	전체	전공별	
		도시계획	그 외
① 매우 충분하다.	1 (1,0)	1 (1,8)	0 (0,0)
② 충분한 편이다.	17 (16,5)	15 (26,3)	2 (4,3)
③ 보통이다.	27 (26,2)	15 (26,3)	12 (26,1)
④ 부족한 편이다.	45 (43,7)	18 (31,6)	27 (58,7)
⑤ 매우 부족하다.	13 (12,6)	8 (14,0)	5 (10,9)
계	103 (100,0)	57 (100,0)	46 (100,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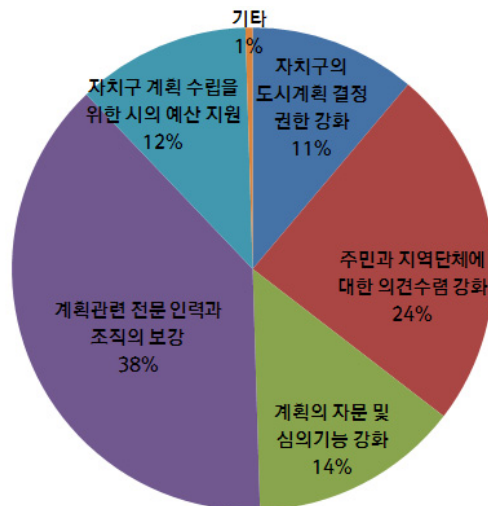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5〉 자치구 계획역량 평가

문 14. 귀하께서는 앞으로 자치구의 계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(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)

〈표 16〉 자치구 계획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(복수응답)

(단위 : 건(%))

구분 (복수응답)	응답수	전공별	
		도시계획	그 외
① 계획관련 전문인력과 조직의 보강	79 (76.7)	44 (77.2)	35 (76.1)
② 자치구 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 예산 지원	24 (23.3)	15 (26.3)	9 (19.6)
③ 주민과 지역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강화	50 (48.5)	25 (43.9)	25 (54.3)
④ 계획의 자문 및 심의기능 강화	29 (28.2)	15 (26.3)	14 (30.4)
⑤ 자치구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 강화	23 (22.3)	15 (26.3)	8 (17.4)
⑥ 기타	1 (1.0)	0 (0.0)	1 (2.2)
응답자수	103 (200.0)	57 (200.0)	46 (200.0)



〈그림 16〉 자치구 계획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(복수응답)

문 15. 귀하께서 서울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(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‘없음’이라고 입력해 주십시오)

● 계획의 위상 및 역할

- 자치구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방침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가교적 성격으로 설정함.
-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과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외에도 재정비촉진계획, 정비기본계획, 및 각종 서울시 차원에서 수립한 행정계획과의 정합성 유지가 필요함.
-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구단위의 현실 및 잠재력을 면밀히 파악한 상태에서 큰틀(Frame; 각종 도시 지표의 배분)을 설정하고, 반드시 그 프레임의 범위 안에서 액션플랜성격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여 계획의 체계와 융통성을 유지 보장해야 함.
-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미래지향적인 교시적, 정책적, 장기적 종합계획의 성격으로 전환한다면, 자치구 기본계획은 실체적, 생활적, 단기적 계획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함.
- 계획권한의 분권화가 이루어지되 서울은 하나의 도시인 점도 감안하여 자치구 간 계획의 균형성과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.
- 광역생활권단위계획으로서의 위상과 계획내용을 반드시 담아 상위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을 도모하여야 함.
-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계획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설정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하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.

● 자치구 기본계획의 수립 방식

- 구 단위계획이라고 하여, 자치구 단위로 수립해서는 안 되고 타 자치구와 단순 비교에 의한 계획수립을 지양하는 전제하에 유사규모, 인접 자치구 간의 협력을 하거나 생활권 단위를 기반으로 서울을 5~6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하여 틀을 마련하고, 이 계획틀 안에서 자치구는 부문별 관리계획 및 실행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.
- 자치구보다 작은 범위(동, 마을, 아파트단지)에서의 계획수립과 참여도 장려해 나갈 필요가 있음.

● 계획의 공식화, 법정화

- 법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유연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치구계획을 비법정계획으로 수립하여 주민 협의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.
- 시차원에서 지정항목과 자유항목을 설정하고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함.
- 자치구계획의 실현성을 위해 법정 계획화하되 자치구별 작성된 계획을 서울시에서 통합하여 도시계획 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함.
- 자치구계획이 서울시에서 제시한 틀에서 벗어나는 계획 활동(특히 용도지역 등)을 담을 경우 그 계획의 법정화를 보류하는 이른바 페널티 조항도 도시계획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음.
- 계획수립 중 주민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으로 계획수립이 장기화될 경우 자치구 권한으로 의견수렴기간 정례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.
- 서울 도시기본계획 틀 내에서 자치구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 및 결정권의 대폭 이양 또는 위임이 필요함.

● 자치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 마련

- 현재 자치구는 계획수립역량이 전무함.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으로 전략할 위험이 크므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우선임.
- 자치구의 도시계획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선진사례 교육 및 실무 습득 훈련을 실시해야 함.
- 전문인력을 확일화, 경직화된 조직으로 구성하기보다는 해당 자치구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임.
- 계획총괄을 위한 MP 제도 도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● 계획의 구성 및 내용

- 자치구 계획에 담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내용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함.
- 주민과 지역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되 특정지역이나 집단에 유리하지 않도록 함.
- 인구 폭증이라는 전제의 도시기본계획적 발상을 지양하고, 국민소득 40,000달러 시대를 지향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실천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.
- 개발이 주인 도시기본계획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, 즉 시민의 입장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됨.

- 자치구의 권한을 강화하되 구청장의 임의 결정이 없도록 관리·감독하는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정치적 성향에 흔들리지 않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참여구조를 설정함.
- 자치구 숙원사업 및 민원사업 위주의 일방적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양함.
- 자치구 기본계획에 대한 관리 및 지속가능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함.

● 계획의 목표연도 및 주기

- 중기 또는 장기계획으로 지속화시킴으로써 구청의 역량을 강화함.
- 자치구 기본계획의 정비기간도 구청장 임기기간과 같이 4년 주기로 하되, 계획 수립 기간은 임기 개시 6개월 이내로 하도록 도시계획조례에 명시(변형된 일몰제 형태)하여 계획수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장치를 강구함.